

[해양문화유산을 찾아서][3] 옛 등대-② 잊혀지는 돌 등대

비지정문화재 옛 등대 원형 찾기 갈수록 가물가물

입력 : 2010. 03.12. 00:00:00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 옛 등대와 현대식 등대가 나란히 서 있다. 돌로 쌓은 옛 등대는 1940년대 초 현재 위치에 세워졌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고산리 초기 돌 쌓은 모양·등롱 등 현재 모습과 달라 연대 위 지어졌던 두모리는 문화재 정비하면서 철거

잠수함 여행을 떠났던 한 무리의 여행객이 포구로 밀려들었다. 오징어 말리는 풍경이 곧잘 신문 사진으로 소개되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이 곳엔 두 개의 등대가 나란히 서있다. 빨간 빛깔 외형을 하고 있는 현대식 등대와 돌로 쌓아올려 시멘트를 바른 옛 등대다.

▶고산리 등대 40년대초 일본 석공 축조

"일본 여객선이 항해할 때 너른 포구를 앞에 둔 차귀섬에 정박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 '도대'가 필요했다. 포구에서 차귀섬까지 불을 비추기 위해 '도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여객선이 올때도 마찬가지였다."

고산1리에 사는 고원준(86)씨는 고산리 옛 등대에 얽힌 기억을 그렇게 풀어냈다. 그는 포구에서 차귀도까지 오가는 배를 '종선'으로 불렀다. 차귀도에 머무른 큰 배에 실은 짐이나 선원 따위를 실어나르는 '심부름 배'였다는 것이다.

옛 등대는 어선의 밤길을 안내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제주의 해양 교류와 연관이 있었다. 고산리 옛 등대는 그같은 점을 방증하는 유산중 하나다. 고산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옛 등대의 건립 배경과 시기가 비교적 소상하다. 2000년에 발간된 '제주고산향토지'에 실린 한 대목을 보자.

"'돌등대'(도대불)는 중일전쟁(1937~1941)이 끝나갈 무렵인 1941년 현석찬이 목포화물선(고산-목포)을 취급할 때 자구내 포구 갯바위 옆에 화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곳간(창고)을 만들고 화물선이 밤에 포구로 들어올 때 불빛을 비춰주어 안전항로를 할 수 있도록 자구내포구 축조공사를 맡았던 일본인 석공에 의하여 만들었다."

일본인 석공에게 마을의 등대 축조를 맡긴 사연은 뭘까. 제주 석공들은 돌로 등대를 제작할 노하우가 부족했던 것일까. 15년에 걸쳐 향토지 자료를 수집했던 고동희(62·제주시 삼도1동)씨는 "80대 중반에 증언을 해줬던 마을 어른들은 지금 돌아가셨다. 도대불 관련 내용은 향토지에 실린 게 전부다. 일본인 석공은 증언자가 한자로 이름을 알려줘서 기록해놓았는데, 어떤 이유로 그에게 축조를 맡겼는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성된 두모리 돌 등대 너머로 제주도기념물인 두모연대가 보인다. /사진=이승철기자



▲ '제주의 도대불'에 실린 두모리 옛 등대.

▶ 연대 활용 돌담 쌓아올려 등대 조성

고원준씨도 "일본 사람이 주동해서 도대를 만들었다"고 했을 뿐 그에 얽힌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정해 석유불을 켜는데 유리문을 달아서 열고 닫았다. 돌도 다듬은 모양이 아니라 지금보다 난잡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남아있는 고산리 옛 등대의 등룡은 유리문을 열고 닫으며 등불을 꺼내기 어려운 모양새다. 돌 재료 역시 말끔하게 다듬은 흔적이 있다. 고산리 옛 등대가 마을 노인들의 증언처럼 1940년대초 지금의 위치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동안 원형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에 하나둘 옛 등대가 흩어져있지만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고산리 인근의 두모리. 이곳에도 잘 다듬어진 돌로 켜켜이 쌓아올린 등대가 서있다. 바닷가와 마주하고 있는 이 등대는 2003년에 조성됐다.

1997년 출간된 '제주의 도대불'(이덕희)에 따르면 일제시대 두모포구 동쪽에 세워진 두모연대 석축물위에 어부들이 돌담을 쌓아올려 옛 등대를 만들었다. 고기잡이배의 바닷길을 밝히다 1973년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았다. 제주시의 '향토문화전자대전'에도 두모연대가 일제강점기부터 등대 시설로 사용되면서 상부가 허물어졌다고 썼다.

하지만 두모연대 정비 작업을 하면서 '도대불' 형상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포구와 더 가까운 곳에 옛 등대와 비슷한 꼴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제주도기념물로 지정된 두모연대의 '복원'에 치중하다보니 옛 민간 등대의 얼굴이 사라졌다. 위치도 바뀌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라도 선대들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른다.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도대 첫 이름 '등명대'일 것"



'칼 같은 돌[劍石]'과 '암초(暗礁)와 여[嶼]'로 화산섬 제주의 해안은 예로부터 뱃길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노를 저을 엄두가 나지 않던 곳이다.

옛 등대가 세워지기 이전 뱃사람들의 아낙들은 비바람이라도 부는 밤이면 횃불을 들고 지아비를 마중 나가곤 하였다. 이것을 '갯불'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를 대신하여 1915년을 근간으로 제주의 포구에는 소위 '도대'라는 옛 민간등대가 1960년대까지 축조되었다.

이제까지 조사된 민간의 옛 등대는 크게 '도대' '도대불' '장명등' '등명대'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옛 등대는 현재 보존되어 있고, 근래 새롭게 복원되고 또 구전으로 그 자취가 전하는 것까지 합하면 최소 26대(臺)의 등대가 존재했었다. 그 호칭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의 장명등(長明燈)과 서귀포시 강정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대 혹은 도대불이라 주민들에 의해 불려졌다. 심지어 '등명대(燈明臺)'란 비각(碑刻)이 남아있는 조천읍 북촌리와 제주시 도두동에서조차 등명대라 하지 않고 분명 도대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도대'란 말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08년 제주문화원에서 제주시관내에 축조 되어있는 옛 민간등대를 조사하였다. 곳곳의 촌로들은 한결같이 '도대'란 말의 유래가 '도우다이'임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구전(口傳)을 따르고 왜정치하의 축조상황을 고려하면 도대는 일본어 '도우다이(燈臺)'에서 왔음이 분명하다. 도대는 '도우다이'의 속음(俗音)인 것이다.

1906년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세워진 우도등대는 나무판자집 위에 나무기둥을 높이 달고 그 위에 등을 걸고 내리게 되어있던 이른바 등간(燈竿)이었다. 제주도 제1호 등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후 1915년 북촌리에 마을사람들에 의해 옛 등대가 세워졌다. 건입동에 산지등대가 세워지기 햇수로 1년 전이다. 민간에 의해 축조된 제1호의 옛 등대라 추정된다. 이곳 옛 등대 상단에 축조를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명칭이 등명대로 되어있다. 등명대는 등대의 우리말식 한자 표기어다. 앞서 언급한 도두동에도 등명대라 새겨진 축조비가 남아있다. 또한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등명대라 불렀다는 조사 기록이 남아있다.

이 등명대가 도대의 처음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당시 어부들이 우도등대의 실용성을 인지하고 이를 본떠 만들기 시작한 것이 도두로, 점차 다른 해안마을로 전파된 것이리라. 하지만 옛 등대 모두가 등명대라 불린 것은 아니고, 1915년경의 북촌과 도두 2곳만이 등명대라 불린다 왜정치하가 지속되면서 기존 '도우다이'라는 일본어에 동화되어 도대로 바뀌 부르게 되었고, 1920년대 후반 이후 축조된 민간의 대부분의 옛 등대는 처음부터 일본식 이름인 도대로 불리었다고 사료된다.

강정동과 구엄리인 경우는 예외적인 곳이라 하겠다. 해방이후 1960년대 근대화의 영향으로 개축되거나 새롭게 축조된 옛 등대가 도대로 불리는 것은 이전 부르던 이들의 습관을 따라 도대라 명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옛 제주의 해안에서 어둠의 항로를 안내하던, 생명의 불씨가 자리 하던 옛 등대는 갯불이 우도의 등간을 만나 등명대가 되고 도대가 되었던 것이다.

<백종진·제주문화원 문화기획부장>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